

회족 촌서기, 민족단결로 소득 증대 길 활짝

- '전국 소수민족 특색마을' 산둥성 림기시 마동촌에 가보다



▲ 마동촌의 민족단결 테마 공원 일각

산둥성 림기(臨沂)시 담성현 마동진 마동촌의 회족 촌서기 조부권(62세)은 전국인대 대표로서 이번 전국 광회에서 고품질 프로젝트를 통한 소수민족촌의 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안을 상정했다.

산둥성과 강소성 경계 지역에 위치한 담성현에는 한족외에도 20여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그중 회족이 5,0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부권 촌서기가 맡은 민주가족에는 회족과 한족이 어울려 살고 있다. 총인구는 2,238명, 그중 회족이 1,320명이다.

전통 풍습이 서로 다른 두 민족이 모여 사노라면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

다. 지난 2016년 마을 당지부 서기에 선출된 조부권은 두 민족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다른 마을 간부와 함께 마을 주민을 직접 찾다니며 한족과 회족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마을 규약을 제정했다.

이중에 중요한 내용은 '두 민족 주민은 상호 존중하고 서로 돕는다'이다. 그는 또 주민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총 60여개 골목에서 신망 있고 능력 있는 마을 주민을 '골목 대표'로 선출해 이웃간 마찰을 해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골목 대표'는 100여건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소, 양 사육 및 가공, 떡 제조에 종사한다. 민주가족의 메인 거리엔 크고 작은 점포 200여개가 들어서있다. 유사한 업종간의 내부 경쟁을 줄이고 함께 발전시키는 것 역시 촌서기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2019년 마동촌당지부는 합작사 설립을 추진했다. '브랜드 통합, 판로 확대'를 돌파구로 삼으며 15개 소, 양 사육 전문 농가와 100여개 소, 양육가공판매기업, 판매점을 모아 규모화되고 표준화된 경영 방법을 모색했다. 덕분에 마동촌에서는 400명 이상의 주민이 근거리 취업을 이루었으며 당해 총집체는 16여만원의 소득 증대를 인아했다. 당지부는 또 인터넷

넷 판매팀을 영입해 상인들의 판로를 확대했다. 소규모 장사에서 점차 규모를 확장해가면서 회족 식품의 가공 산업은 마동촌의 소득 증대의 길을 넓혔다.

촌서기는 마을 주민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촌당 지부, 촌위원회가 잇달아 마을내 옛 거리 두곳을 전면 개조해 민족단결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련투, 놀이공원, 바독실 등을 만들었다. 마을 곳곳엔 세멘트길이 닦였고 주민 가옥은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집 안팎을 깨끗하게 정돈했다.

이와 더불어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마두 청진사(淸眞寺)도 새로 단장했다. 이 공사에 "회족 주민뿐만 아니라 한족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돕고 힘을 보탤수다." 촌서기는 1405년(명나라 때)에 세워진 마두 청진사는 우리 나라의 전통 건축과 이슬람 건축 양식의 장점을 모아 세워진 고대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촌서기는 마두 청진사 관계자와 함께 사회주의핵심가치관과 이슬람교 교리를 적은 포스터를 제작해 마두 청진사내에 전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과 정부의 목소리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족 문화에 대한 한족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촌서기의 설명이다.

이러 2021년 마두 청진사는 '산둥성민족단결진보교육기'로 명명되었다. 최근 수년간 민주가족은 '전국 소수민족 특색마을', '민족단결진보선진모범단체' 등으로 선정되었으며 촌서기는 2023년 제 14기 전국인대 대표로 선출되었다. / 신화넷

전통 민속 행사와 현대 명절 융합해요



▲ 어린이들의 참여로 의미를 더한 옷놀이 현장

흑룡강성 오상시문체방송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오상시문화관, 오상시조선민족사업추진회에서 주관한 '3.8'국제로동부녀절 경축 및 제 17회 옷놀이 활동이 3월 8일 오상시에서 펼쳐졌다. 오상시 각계 조선족 군중, 여러 사업단위, 사회단체 일군과 회원 그리고 학생 등 남녀로소 300여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오상시 조선족 군중들은 줄곧 국제로동부녀절 경축과 전통 민속 행사인 옷놀이 활동을 결합시켜 민족문화의 전승과 현대 명절의 창조적인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옷놀이 활동과 문예공연은 이미 오상시의 문화 브랜드로 되어 조선족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흑룡강신문

심양시 조선족 여성들 경축·총화표창·련환회



▲ 표창대회 무대에 오른 '장미상' 수상자들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 '3.8'국제로동부녀절 경축 총화표창대회 및 련환회가 일전 심양에서 있었다. 행사에는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 및 학교 대표들이 특별 참석해 여성의 명절을 축하했다.

리경자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여러 부회장 및 위원장들이 2024년 협회의 사업을 총화했다. 지난 한해 협회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하는 취지로 '3.8'부녀절 경축행사, 어머니날 활동, 독서회, 우리말 사랑 시 낭송 대회 및 특별 문예공연 대회, 고아원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누기 활동 등 고품질 브랜드 활동을 잘 추진한

동시에 서향원, 랑송반, 합창반, 판소리반, 조선족무용반, 색소폰반, 성악반, 배구반 등을 잘 운영하여 여성들의 성장을 촉진했다. 아울러 후대양성, 사회공익사업 등 분야에서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창대회에서는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우수회원상, 장미상, 라화상, 공헌상을 발급하고 협회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민간단체, 기관단위 대표들과 사회 유지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식 행사에서 이어 경축 련환회와 신나는 유희가 진행되며 명절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 료녕신문

해발 3,000미터 장족 마을, 관광객들로 넘쳐나

봄이 되자 감숙성 남녕장족자치주 하하(夏河)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서장식 버터인 우유(酥油)의 독특한 향기가 멀리서 온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전국 각지의 변호판을 단 차량들이 거리의 주차 공간을 가득 메운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하하현은 평균 해발이 약 3,000미터이다. 이곳의 민박 아마장은 4층 건물에 총 1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객실은 서장식 원목으로 꾸며져있다.

아마장의 책임자인 남철합은 과거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다가 고향에서 관광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지난 2023년 귀향해 자신의 집을 민박으로 개조했다. 매년 관광 성수기가 되면 민박집은 예약이 가득차는바 지난해 매출이 30만원을 상회했다.

아마장 민박에서 나와 대화하 강변을 따라 거닐다 보면 멀리 산비탈에 '우저린카'라는 식당이 있다. 이곳은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의 하나다. 식당은 대중적인 맛과 지



▲ 서장 음식 전문점 우저린카의 책임자가 직원과 메뉴를 논의하고 있다.

역 특색을 살려 혼합 요리를 주력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서장 음식 전문점이다.

"외식업은 반드시 시대에 맞춰 발전해야 합니다. 외지 관광객이 이곳

을 많이 찾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들이 우리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손님들의 다양한 입맛도 배려해야 합니다." 식당 책임자 궁보의 말이다.

그는 최근 수년간 현지의 빠른 발전이 문화관광 발전에 열기를 가져왔으며 꾸준히 개선된 인프라와 발달된 인터넷 플랫폼도 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외지 관광객중 약 60%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식당을 찾았다고 한다.

광둥성 출신인 맹춘방(30세)은 지난 2023년 친구와 함께 하하현으로 여행을 왔다가 이곳에서 창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산슬 스튜디오'를 오픈한 그는 주로 관광객들에게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하하현의 문화관광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러 문화관광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하하현은 지난해 연인수로 총 506만 7,6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관광 종합 수입은 32억 2,5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하현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14만 6,000명을 기록했다. / 신화넷



장족 전통 승마 경기

지난 3월 2일은 장족력으로 2025년 새해 조사출날이었다. 이날 민족 전통 승마 공연 및 민족경마 행사가 라싸시 경마장에서 펼쳐졌다. 승마술은 서장에서 상서롭고 용감하며 지혜로움을 상징한다. 기수들은 아슬아슬하면서도 정재로운 승마 표현으로 관중들에게 새해의 축복을 전했다.

/ 신화넷

서장반, 40년간 장족학생 6,300명 양성



일전, 료녕성 료양시제 1중학교 서장반은 '서장반 설립 40주년 경축' 시리즈 행사로 문예공연을 펼쳤다.

이날 료녕성당위 교육사업위원회, 통전부, 료양시 정부, 교육국 등 성, 시 관계부문의 책임자들이 600여명 장족 사생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가무 <짜시우(扎西秀)>로 막을 올렸다. 이어 장족노래 <랑부현녀>, 무용 <장족 아들딸 당에 감사드리네>, <격상화와 월계화는 영원히 한집안> 등 독창, 4인창, 집체무, 합창, 시랑송 무대가 펼쳐졌다. 노래 <가장 아름다운 서장>과 <나의 중화를 사랑하네>는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켜 이끌었다.

공연이 끝난 후 서, 시 관계부 책임자 일행은 장족 학생들의 수공작품 전시실과 기타실, 무용실 등 13개 성과 전시실을 둘러보며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학습 생활하고 있는 장족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체감했다.

료혜에 따르면 료양시제 1중학교 서장반은 1985년 8월에 설립, 40년간 장족학생 6,300명을 양성했다. 또한 선후로 국가, 성, 시로부터 '민족단결진보선진단체' 영예와 '민족교육사업선진단위' 영예를 안았으며 서장반 당지부는 당창건 100주년에 당중앙으로부터 '선진기충당조직' 영예를 안은 바 있다.

/ 료녕신문